

지역청년 창업 확산 비전 선포

전북대 등 6개 대학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강화 협약



지난 22일 한양대학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철승 장관을 비롯해 전북대, 강원대 대구대, 부산대, 한양대, 호서대 등 6개 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전선포식과 함께 협약식을 가졌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등 6개 대학이 지역청년 창업 확산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한양대학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철승 장관을 비롯해 전북대, 강원대, 대구대, 부산대, 한양대, 호서대 등 6개 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전선포식과 함께 협약식을 가졌다.

‘창업중심대학’은 지역 청년 확산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강화를 주요 사업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대는 ‘도전하는 청년, 꿈을 이뤄주는 창업중심대학’이라는 비전을 갖고, 지역청년 확산의 거점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 수소배터리 등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의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단계적 청년창업기업 및 우수 창업기업 육성을 도모해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 스타트업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규 전북대 창업지원단장은 “지역 청년들이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도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호남 권역 청년창업 확산 및 창업생태계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28일 임직원 및 교육생들이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헌혈인구가 급감해 혈액 수준이 주의 단계까지(지난 22일 기준 혈액보유량 3.5일분) 격상됨에 따라 직원들의 단체 헌혈봉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사랑의 헌혈 운동 확산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생들 1,200여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헌혈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한편 이날 단체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전북도 혈액원 버스에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헌혈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탑승 전·후 손 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헌혈에 직접 동참한 전정희 센터장은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헌혈 행사에 적극 동참해 준 직원과 교육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동아리의 대문 열어라’ | 전북대 총동원, 구정문 알림의거리서 동아리 모집행사

‘동행, 동아리의 대문을 열어라!’ 전북대 구정문 알림의거리가 부스와 학생들로 북적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전북대 총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 모집행사가 23~25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동아리 모집행사에는 전북대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

하는 심건지와 노모스 등 50여개 동아리가 참여 각 동아리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대면강의가 활성화 된 캠퍼스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전북대 총동아리연합회는 중앙에 운영부스와 이벤트 부스를 마련해 이곳을 찾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정영권 전북대 총동아리 연합회장은 “우리 대학의 동아리들이 오랜만에 활발한 새학기를 맞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많은 학생들이 학업과 함께 자신에 맞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알찬 대학생활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팔레트-우리의 색을 채우다’ | 전주대, 신입생 적응 강화 프로그램 진행



전주대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인 중앙동아리연합회 주관으로 2022학번 신입생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팔레트-우리의 색을 채우다’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발생 후 대학 생활 적응이 어려운 신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신입생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인생 사진관, 영수증 사진기, 꽃벽 포토존 등신입생 추억 만들기 포토존 운영 ▲중앙동아리 소개 및 상담 부스 운영 ▲신입생 참여형 게임 프로그램 운영 ▲학술회 소개 편람 제

공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취업처 이상행 처장은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한 행사가 성황리에 열려 신입생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반갑다”며, “신입생 여러분이 잘 적응해서 대학 생활을 즐기고, 또 캠퍼스의 낭만과 아름다움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총학생회와 학생자치기구인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대학 생활 적응력 강화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3월말~4월초 봄 축제, 5월 중 성년의 날 기념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학생 참여와 자치’

도교육청, 내달 4일부터 학생인권 날 공모전
UCC·그림·랩·글 등 4개 분야 신청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2년 학생인권 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전라북도 학생인권 날을 기념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2 전라북도 학생인권 날 공모전’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매년 4월 2일을 학생인권 날로 지정, 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UCC(영화·연극 등의 동영상 애니메이션, 3분 이내) ▲그림 웹툰(1인 1점) ▲랩(영상 또는 음원, 2분 이내) ▲글 시(자유 형식, A4 3쪽 이내)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UCC와 랩 분야는 초·중·고 학생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 가능하고, UCC에 한해 교직원 참여가 가능하다. 그림, 웹툰과 글 시 분야는 초·중·고 학생 개인으로만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주제는 ‘학생 참여와 자치’로 학생 참여와 자기결정권, 소

수 학생의 권리 보호(참여권 중심)로, 그밖에 학생 인권과 자치에 관한 내용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작품접수 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로, UCC와 랩, 웹툰, 글, 시 등은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http://human.je.go.kr)-공모전으로 참여하고 그림에 한해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출품 규격 및 참여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품된 작품은 작품성·진정성·활용성 등을 심사해 5월 28일 공문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 48팀에 9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학생인권교육센터 담당자는 “학생인권 날 지정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교육공동체의 자치와 창의성이 돋보이는 많은 작품들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도교육청, 다문화가정 고교생 진로지원 강화

100명에 1인당 100만원씩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2학년도 다문화가정 고등학생 맞춤형 진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다문화가정 고등학교 학생에게 진로 관련 각종 기술자격증 습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 개인의 소질개발 및 진로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원 내용은 ▲이미용·굴삭기·용접·정보처리 등 각종 자격증 관련 기술 습득을 위한 학원 수강 및 교통비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가능 습득을 위한 학원 수강 및 교통비로,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관련 학원 수강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국내

출생은 물론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자녀 등 도내 다문화가정 고등학생 100명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각 학교에서 신청자 명단과 진로개발 계획서, 학교장추천서 등의 서류를 갖춰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4월 18일 대상자 심사·선정 후 학교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선정된 학생들은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련 분야 수강을 한 뒤 학교에 수강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장학사는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진로 탐색 및 진로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희망진로 및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와 기술 획득으로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